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151.5	20.9	161,500	-0.9	11.4	-5.3	16.7	58.1	131.4	0.8	0.8	1.3	0.6
현대로보티스	6,701.9	20.2	411,500	-1.8	-3.4	-13.4	N/A	4.5	5.1	0.9	0.8	19.4	15.8
현대미포조선	889.8	5.9	222,500	-1.5	-3.3	-26.2	N/A	10.9	7.4	1.0	0.9	9.5	13.1
현대건설기계	1,411.0	10.4	352,500	2.0	-5.4	-4.4	N/A	11.0	8.4	1.4	1.2	13.1	15.8
삼성중공업	5,167.5	18.5	13,250	3.1	18.3	17.8	43.2	67.2	143.3	0.8	0.8	1.2	0.6
대우조선해양	2,205.6	3.6	21,000	2.4	N/A	N/A	-53.1	1.3	11.8	0.5	0.6	63.6	4.9
현대미포조선	2,220.0	14.4	111,000	-1.3	18.0	4.2	65.2	10.9	37.6	0.9	0.9	8.9	2.4
한진중공업	415.2	4.2	3,915	2.1	3.0	-12.0	16.3	-12.2	8.8	0.5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54.8	31.2	55,000	-0.4	10.1	7.4	-4.2	10.2	9.7	1.5	1.3	15.9	14.6
두산밥캣	3,624.0	24.5	36,150	0.0	-1.1	-4.6	0.8	15.9	14.5	1.0	0.9	6.6	6.7
현대로템	1,691.5	28.2	19,900	0.0	12.4	7.6	9.6	37.7	25.5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71.0	47.5	27,250	0.2	29.1	15.2	29.1	14.3	12.6	1.2	1.1	8.5	9.0
성광밴드	297.4	15.0	10,400	0.0	11.3	4.1	17.4	33.6	19.4	0.6	0.6	1.9	3.2
태광	275.6	16.7	10,400	0.0	11.9	6.2	25.5	38.9	21.5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863.1	8.4	17,500	3.6	2.3	-7.7	-35.7	-85.2	10.9	0.6	0.6	-0.5	5.2
두산인프라코어	2,008.6	11.8	9,680	-0.5	17.9	11.1	9.8	10.1	8.5	1.0	0.9	9.6	10.4
두산엔진	318.3	5.0	4,580	1.7	14.8	10.4	39.4	32.7	32.4	0.6	0.6	1.8	1.8
한국항공우주산업	5,312.4	20.1	54,500	-0.5	24.7	38.0	-18.7	48.6	22.1	3.6	3.2	7.3	14.9
한화테크윈	2,109.3	21.4	40,100	-1.0	20.8	2.0	-7.7	29.8	19.7	0.9	0.9	3.0	4.4
LIG넥스원	1,595.0	19.8	72,500	-0.5	-0.4	-13.2	-9.9	16.2	15.0	2.3	2.0	14.8	14.2
태웅	376.1	1.8	18,800	-0.8	12.9	-14.0	-16.3	48.6	16.6	N/A	N/A	1.2	3.5
동성화이텍	135.7	3.6	5,030	2.0	0.9	-19.1	-12.5	N/A	N/A	N/A	N/A	N/A	N/A
한국기본	264.2	16.7	6,010	0.8	2.9	-1.8	-0.7	20.2	27.2	0.8	0.8	4.1	3.0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osebank FPSO bidders eye March 2018

2018년 3월 오일메이저 Chevron의 영국 Rosebank FPSO 입찰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싱가폴 Sembcorp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개사는 올해 9월 입찰제안서를 받았다고 알려짐. Chevron은 내년 3월 기초설계(FEED)를 진행 후, 2018년 말~2019년 초 최종투자결정(FID)을 결정해 2022~23년 생산을 계획함. FPSO 규모는 Chevron이 2016년 말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가 취소한 20억달러 규모와 유사해, Chevron은 작고 저렴한 FPSO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은 사업초기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Chevron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SK Shipping set to book VLOC pair in China

SK해운은 Vale와 장기운송계약(COA)을 위해 발주 예정인 32.5만DWT급 VLOC 2척을 중국 Dalian Shipbuilding Industry Co(DSIC)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은 LNG-Ready로 건조되며 선가는 각 7.6천만달러로 예상됨. 회사 관계자는 아직 조선소를 선택하지 않았고, 국내와 중국 조선소 모두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Carnival signs US cruisechip LNG fuelling deal with Shell

Carnival Cruise Line(CCL)은 오일메이저 Shell과 LNG연료선박에벙커링을 통해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2020년과 2022년에 담금 예정인 크루즈선 2척은 Shell의 LNG bunker barge로 공급될 예정임. 관계자는 전체 선대를 LNG로 운영하진 않지만, 향후 환경친화 연료사용 증가를 계획함. (TradeWinds)

CMA CGM은 진정한 혁명ا

DNV GL은 CMA CGM이 2.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에 LNG 추진 시스템을 장착하는 결정이 해운업계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2.2만TEU급 선박에 LNG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다는 점과 LNG 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해운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선박뉴스)

하이투자증권 팔고 현대중공업 투자 산 현대미포조선, 왜?

현대미포조선은 하이투자증권 매각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울산공장 해양 플랜트 부지와 건물, 구축물 등 일부를 4,43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함.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양플랜트 잔여 일감은 1기뿐이어서 유휴 부지가 많고, 현대미포조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장생포 부지는 내년 3월 반납해야 해서 부지를 취득했다고 알려짐. (머니투데이)

Maersk Line favours low sulphur fuel solution to LNG train

Maersk Line의 관계자는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LNG추진선보다는 저유황유를 찾고 있다고 밝힘. 기존 선대도 저유황유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서 선호함. 그럼에도 신조선을 주문할 때나 기술적 진보가 있을 때는 LNG 옵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Sinopec signs for Alaska LNG

Sinopec을 포함한 중국 국영기업 3사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LNG 프로젝트 개발에 합의했고, 이로써 중국 LNG 수출물량을 확보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 430억달러 규모로, 연간 2천만톤 LNG를 생산 가능을 목표함. 그러나 LNG 프로젝트는 최소 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